

“職業을 통한 社会奉仕만이 淨化의 지름길”

金一鎬 / 인천중구건축사합동사무소

官과 協會 그리고 우리 建築士들이 삼위일체가 되어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부조리 척결의 구호를 외친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 그러나 아직도 이를 되풀이 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知性人으로 자처하는 우리의 처지에서 볼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화 대상은 극소수의 몰지각한 建築士이며, 이로 인하여 전체 건축사의 명예가 손상되고 있음은 실로 한심한 일이다.

職業, 특히 專門職業은 그 사회의 발전을 좌우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우리 건축사도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함이 어느 직업인 못지않게 크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한 견지에서 建築士의 한사람으로써 다음의 몇가지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다만 본인의 제언이 피상적인 것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의 현실에 공감을 주고 부조리 척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기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부조리 척결방안

정부시책에서 建築業務의 부조리가 어떤 民願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이는 建築士들의 시행착오에서 온 현실이며, 그동안 많은 시간과 예산을 들여 가면서 시정하겠다는 노력도 보람없이 현재까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建築士의 본분에 충실하고 고객의 無知를 이해시켜 정당한 업무만을 정당하게 처리한다면 부조리는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協會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부조리를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줄로 안다.

모순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현실에 집착하며 자기의 부당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므로 부조리를 뿌리채 뽑는 일은 극히 힘든 일이겠으나 그것만이 우리의 死活이 걸려 있는 가장 큰 일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각성해야 할 것이다.

● 建築風土 개선

우리 建築士業務는 職業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예술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우선 보다는 사회발전에 기술로서 봉사하고, 그 봉사가 예술이라는 결정체로서 승화될 때 우리 建築人들은 어느 직업인보다도 존경받는 사회인이 되리라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다 많은 자기성찰과 기술연마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建築士界는 회원간의 실력에 너무 많은 거리와 차이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차이가 평균화 된다면 건축풍토 개선이라는 부끄러운 단어가 필요없게 될 것이다.

● 會員業務의 淨化

우리 建築士業務는 사무소의 규모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간단한 서민주택이나 복잡한 고급주택이나 기본설계는 동일하다. 하지만 일부 建築士가 작성한 設計圖를 보면 같은 회원으로서 무색할 정도의 것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서 시공이 가능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분류만 야기되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원인이 되며 아울러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는 <덤핑>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우리 建築士는 사회예술을 창조하는 職能人이다. 따라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감지한다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사리에 어긋나는 일과는 결코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충족시켰을 때 우리 建築士의 권익은 물론 사회적인 지위 향상과 가치관은 판이하게 달라질 것이다. 또한 사회는 우리에게 더 많은 진취적인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建築士는 업무를 통한 사회봉사자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리라 믿는다. <＊>